

# 구약논단

제 15권 4호(통권 34집) 2009년 12월 31일

김 영진(연세대) 시편과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의 비교 연구 ..... 88

본 연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과 시편을 비교하여 시의 유형이나 구조, 내용과 신학적, 사상적인 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더 심도 있게 밝히는데 있다. 연구결과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과 시편의 유사점은 자연적으로 발견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각 문화권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이점은 신학이나 신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시가문학은 가나안 시가문학, 특히 우가리트 시가문학의 영향 아래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Kim, Young-Jin The Psalm and the Psalmody of Mesopotamia ..... 88

---

## 시편과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의 비교 연구

---

김 영진 | 연세대

### 1. 들어가기

시편의 다양한 유형은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유형인가 아니면 고대 근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주변 국가로부터 수입한 문학 유형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시편과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20세기 초·중엽부터 성서학자나 혹은 성서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비교연구가 시작되었다.<sup>1)</sup> 이러한 비교 연구들은 고대 근동의 시가문학을 장르별 혹은 주제별로 나누어 시편과 비교하였다. 특히 초기의 학자들은 시편의 기원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연구는 궁켈(H. Gunkel)과 모빙켈(S. Mowinckel) 등에 의하여 연구되었다.<sup>2)</sup> 이 가운데 모

---

1) G. R. Driver, "The Psalms in the Light of Babylonian Research," D. C. Simpson(ed.), *The Psalmists: Essays on Their Religious Experience and Teaching, Their Social Background, and Their Place in the Development of Hebrew Psalmod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6), 109-175쪽; C. L. Feinberg, "Parallels to the Psalms in Near Eastern Literature," *BibSac* 104 (1947), 290-297쪽; F. Stummer, "Die Psalmengattungen im Lichte der altorientalischen Hymnenliterature," *JSOR* 8 (1924), 123-134쪽; G. Widengren, *The Accadian and Hebrew Psalms of Lamentation as Religious Documents: A Comparative Study*, (Uppsala: Almqvist & Wiksells, 1936).

2) H. Gunkel, *Die Psalmen: uebersetzt und erklar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Ders.,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osen Lyrik Israel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3); Ders., *Introduction to Psalms: The Genres of the Religious Lyric of Israel*,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Ders.,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김 영진, "시가문학의 고대 근동

빙켈은 양식비평을 기초로 제의-기능적 접근(cult-functional approach)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의 아키투 축제(Akītu festiaval)의 영향을 받은 야웨의 왕권을 선포하는 신년축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의 특정 시가문학과 고대 근동의 시가문학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시 29편과 하박국 3장을 우가리트 시와 비교 연구,<sup>4)</sup> 시 104편과 고대근동 시가문학과의 관계<sup>5)</sup> 뿐만 아니라 시편의 특별 구절과 고대 근동시가문학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후드(M. Dahood)는 우가리트 시와 시편을 비교하는 비교문학적 방법으로 시편을 연구하여 유사성을 주장하였다.<sup>6)</sup>

이러한 연구 가운데 왈톤(S. H. Walton),<sup>7)</sup> 로버츠(J. J. M. Roberts),<sup>8)</sup> 그리고 스팅스(K. L. Sparks)<sup>9)</sup> 등은 시편과 고대 근동의 시가문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이 가운데 스팅스는 왈톤과 마찬가지로 주로 고대 근동의 시가문학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 가운데서 고대근동의 시가문학과 유사한 장르나 형식을 가진 히브리어 시가문학을 소개하고 있다.<sup>10)</sup>

본 연구는 시편과 고대 근동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을 비교하여 시의 유형이나 구조, 내용과 신학적, 사상적인 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적 배경에 관한 연구,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서울: 한들출판사, 2006), 59-74쪽.

- 3) S. Mowinckel, *Psalms in Israel's Worship*, 1-II, (Nashville: Abingdon, 1962).
- 4) 시 29편과 고대 근동의 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이미 긴스버그(H. L. Ginsberg)이나 가스터(Gaster), 올브라이트(W. H. Albright), 크로스(F. M. Cross) 등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시 104편과 고대근동의 관계, 시 29편과 우가리트 문학과의 관계, 그리고 합 3장과 우가리트 문학이나 바빌론 문학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였다. P. Craigie, "The Comparison of Hebrew Poetry: Psalm 104 in the Light of Egyptian and Ugaritic Poetry," *Semitics* 4 (1974), 10-21쪽; F. C. Fensham, "Psalm 29 and Ugarit," *Studies on the Psalms*, (Potchefsroom, 1963), 84-89쪽; Avishur Y., *Studies in Hebrew and Ugaritic Psalms*, (Jerusalem: Magness, 1994), 111-205쪽; H. L. Ginsberg, *Kitbe Ugarit*, (Jerusalem, 1936); 기 민석, "시 82편: 우가리트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제 32집(2009년 6월), 111-130쪽.
- 5) P. Craigie, "The Comparison of Hebrew Poetry: Psalm 104 in the Light of Egyptian and Ugaritic Poetry," *Semitics* 4 (1974), 10-21쪽; F. C. Fensham, *윗글*(1963), 84-89쪽.
- 6) M. Dahood, *Psalms I-III*, (New York: Doubleday, 1982, 1983).
- 7) J.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9), 135-168쪽.
- 8) J. J. M. Roberts,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2002), 44-58쪽.
- 9) K.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Peabody: Handdrickson, 2005); H. Gunkel, *Introduction to Psalms: The Genre of the Religious Lyric of Israel*.
- 10) 유 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제 32집 (2009년 6월), 48-52쪽.

더 심도있게 밝히는데 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으로 연구를 제한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이 시편의 모든 장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유사한 시의 유형을 서로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신학의 차이가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준다.

## 2. 시편과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의 유사점

고대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는 지정학적인 이유때문에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관계를 맺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시가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문학 장르와 다양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점이 드러났다.<sup>11)</sup> 마찬가지로 시편과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을 비교 연구하였을 때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된다.<sup>12)</sup> 특히 시의 형식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내용적인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유사점은 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발견되며, 차이점은 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발견된다.

### 1) 유형적 유사점

고대근동 시가문학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형적으로 유사점이 발견된다.

첫째, 장르적 유사점이 있다. 시편의 유형을 분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다양한 유형이 제시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찬양시, 탄원시 그리고 감사시로 나눌 수 있다는 점<sup>13)</sup>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을 찬양시, 탄원시 그

11) J.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9)을 참고하십시오. 김 영진, 「이스라엘 역사 서설」(광주: 울람하타낙, 2002), 80-95쪽.

12) 서로 다른 문화권의 문학작품을 비교할 때 주의 할 점은 동일한 표현이 다른 종교적인 문학에서 사용될 때 항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개의 유사한 구가 반드시 동일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H. Ringgren, *The Faith of the Psalmists*, (Philadelphia: Fortress, 1963), 115-116쪽.

13) 궁켈(H. Gunkel)과 베스트만(C. Westermann)은 시편의 시를 세 종류로 나누었다. 특히 궁켈은 문학에서 형식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심 요소는 삶의 정황, 본문의 사상과 분위기 그리고 형식과 관련된 언어라고 생각하였다. 궁켈은 양식비평에 의하면 시편은 찬양, 개인 애가(탄원시), 공동체 애가(탄원시), 그리고 감사시로 나눌 수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찬양시편, 야웨 즉위시편, 공동체 애가, 제왕시편, 개인 애가, 개인 감사시, 순례시, 승리의 노래, 시온의 노래, 이스라엘 감사시, 전설, 토라시, 확산의 노래, 지혜시, 예언시 그리고 합성시 등 열다섯 부류로 세분하였다. H. Gunkel, *Introduction to Psalms. The Genres of the Religious Lyric of Israel*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리고 기도(주문)로 나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sup>14)</sup> 시편 가운데 찬양시와 탄원시가 주된 시의 장르라는 사실은 고대근동의 시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각 시의 장르들이 다시 공동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나뉘는 것도 시편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특징이다. 이러한 유사점은 시편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의 사용용도가 유사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둘째, 시가문학의 문학기법상의 유사점이 발견된다.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인 평행법(parallelism)과 대구법(chiasmus)이 시편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sup>15)</sup> 뿐만 아니라 시편이나 고대근동의 시가문학은 반복(refrain)을 많이 사용한다. 반복은 한 편의 시안에서 어떤 부분이 두 번 이상 같은 구절이 언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반복의 단위는 단어(시 67: 4, 6)이거나 문장이거나 구이거나 그 형태는 다양하다. 마르둑의 찬양시의 경우 '진정하소서'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또한 이합체시(acrostic) 기법도 많이 발견된다(시 9-10, 119편 등).

셋째, 메소포타미아 탄원시 가운데서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악기의 종류를 표시하는 표제어가 발견된다. 발락(Balag) 탄원시는 하프를 켜면서 부르는 노래이며,<sup>16)</sup> 티기(Tigi) 탄원시는 저음의 북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에르셈마(eršemma) 탄원시는 탬버린을 치면서 탄원을 노래하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악기의 사용에 관한 표제어는 구약성서에서도 발견

14)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의 장르 분류에 대하여 A. Falkenstein/W. son Soden, *Sumerische und Akkadische Hymnen und Gebete*, (Zurich: Artemis, 1953); M. -J. Seux, *Hymnes et Prières aux Dieux de Babylonie et d'Assyrie*, (Paris: Cerf, 1976); W. Mayer, *Untersuchungen zur Formensprache der babylonischen "ebetsbeschworungen"*,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6)을 참고하십시오.

15) W.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4), 7-9쪽.

16) 발락(balag)(Akk. *balaggu*)은 하프모양의 악기로서 이 악기를 켜면서 탄원하는 것을 발락탄원이라고 부른다. 수메르어로 된 발락 탄원시는 갈라(*gala*) 제사장에 의하여 신전에서 하프를 켜면서 노래되었던 탄원시이다. 발락 탄원시의 목적은 화난 신을 달래는 것이다. 특히 신전의 재건 및 새신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노래이다. 더 나아가 이 장르의 탄원시는 정규적인 제의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신이 화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제의에서도 사용되었다. 발락 탄원시에는 파괴된 도시들이나 신전들의 긴 명단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슬픈 신과 여신들의 명단도 등장한다. *CAD B*, 38-39쪽.

17) 에르셈마(eršemma) 탄원시는 에르셈마로 시작되며, 신을 달래기 위한 시이다. 에르셈마(eršemma) 탄원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메르의 에메살 방언(Sumerian Emesal dialect)을 사용하며, 둘째, 왕보다는 신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셋째, 서언 부분에 신의 수식어, 도시들 그리고 건물들에 대한 목록이 등장한다. M. E. Cohen, *Sumerian Hymnology: The Eršemma* (HUCA Supplements 2),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1981), 110-117쪽,

된다. 시 46편의 알라뫼트 히브리어 ‘알 알라모트’로 그 의미는 플룻이나 파이프 같은 악기를 의미한다.<sup>18)</sup> 또한 시 5편의 엘-하느히로트는 관현악기를 뜻한다. 또한 마할랏 역시 관악기나 피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9)</sup>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방식에 의하여 발발레(Balbale) 시는 서로 한 구절씩 부르는 교창 노래이다. 에르샤훈가(eršahunga) 탄원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탄원 노래이고,<sup>20)</sup> 슈일라(šulla) 탄원시는 손을 들고 주문을 외는 노래이다.<sup>21)</sup> 이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슈일라 탄원은 히브리어 시편에서도 등장한다. 시 28편 2절, 44편 20절, 63편 4절, 68편 31절, 88편 9절, 134편 2절, 141편 2절, 143편 6절 등이다.

셋째, 탄원시의 기본 구조가 유사하다. 시편의 탄원시나 메소포타미아 탄원

Eršemma no. 1.1 and Eršemma no. 1.2.

18) 김 영진, 「크투뵘: 성문서 연구」(서울: 한울출판사, 2007), 89쪽.

19) 김 영진, 「크투뵘: 성문서 연구」, 86-91쪽.

20) 수메르어로 기록된 에르샤훈가(eršahunga) 탄원시는 문자적인 의미로 ‘마음을 위로하는 탄원’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기도들은 수메르어로 된 편지기도의 문학적인 결과이다. 에르샤훈가(eršahunga) 탄원시는 카스 왕조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고-바벨론어로 된 것이 하나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에르샤훈가(eršahunga) 탄원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찬양적인 서론, 탄원, 회개의 기도 그리고 신에 대한 감사로 마치고 있다. 대부분의 수메르어 탄원시와 마찬가지로 에르샤훈가(eršahunga) 탄원시는 에메살 방언으로 기록된 개별 탄원시인데 대개 원수들에게 대항하면서 신에 의해 발생한 슬픔 또는 재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에르샤훈가(eršahunga) 탄원시는 노래로 불리기보다는 읽었으며, 아카드어로 번역되었다. E. R. Dalglis, *Psalm Fifty-one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Patternism*, 22쪽, 각주 21번.

21) 주술적 기도인 슈일라(šulla)는 기도할 때 손을 드는 동작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슈일라(šulla) 기도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모두 발견된다. 수메르어 슈일라는 에메살(Emesal) 방언으로 기록된 찬양과 표준방언으로 기록된 제의적 주술을 포함하고 있다. 찬양 부분은 에르셈마(Eršemma)와 유사하며, 고바벨론 시대의 탄원 제사장의 주술문 목록이 등장한다. 주술부분에는 주술제사장(āšipu)의 목록의 한 부분이다. 수메르어의 아메살 방언으로 기록된 슈일라는 47개 남아 있는데, 슈일라에는 저주나 탄원이 담겨있지 않다. 아카드어로 기록된 슈일라(šulla)는 주로 카스 시대(Kassite period: 주전 1500-1200년경)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약 150개 남아 있는데 대체로 탄원 기도들이다. 에벨링은 슈일라(šulla) 가운데 74개를 출판하였다. 슈일라(šulla) 장르는 쿤스트만(W. G. Kunstmann)이 분석하였다. 아카드어로 기록된 슈일라(šulla)는 주로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탄원이 결합된 형태이다. 슈일라는 대략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sup>1)</sup> 첫째, 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수식으로 신을 찬양한다(찬양). 둘째, 신의 도움을 구하는 탄원이 기록되어 있다(탄원). 셋째, 탄원이 승낙되어지면 찬양할 것을 약속하는 부분이 등장한다(감사). M. E. Cohen, *Sumerian Hymnology: The Eršemma*, 110-117쪽, Eršemma no. 1.1 and Eršemma no. 1.2; E. Ebeling, *Die Akkadische Gebetsserie 'Handerhebung'*, (Berlin, Akademie, 1953); W. G. Kunstmann, *Die babylonische Gebetsbeschwörung*, (Leipzig, Hinrichs, 1931); T. Anusch, *Studies in Literature from the Ancient Near East*, ed. J. Sasson,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84).

시는 기본적으로 찬양-탄원-감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22)</sup> 또한 탄원시에 탄원과 찬양이 함께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탄원시와 감사시 그리고 찬양시를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것도 공통적인 유사점이다.

## 2) 내용적 유사점

시편과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 사이의 내용상 유사점을 발견한다.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의 주된 내용은 신이나 왕의 성품을 찬양하거나<sup>23)</sup> 화난 신을 달래거나 신에게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시편에서도 발견되어진다. 그러나 시편에는 수메르 찬양시에서 발달된 왕에 대한 찬양이나 신전에 대한 찬양시가 널리 발견되지는 않는다.<sup>24)</sup> 오히려 여호와 한 분의 절대주권과 여호와의 전능하고 위대하심과 예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많이 발견된다(시편 8, 19a, 29, 33, 65, 66, 92, 100, 104, 113, 114, 117, 135 그리고 145-150편 등).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찬양시에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다신론적인 영향으로 어느 한 신의 절대주권을 찬양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상류층 신들이 마치 절대주권을 가진 것처럼 찬양되고 있다. 신의 성품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고대근동의 묘사의 차이점, 특히 규모의 차이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근동의 여러 신들은 자연세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찬양을 받는다. 따라서 바벨론에서는 태양신 샤마쉬(Shamash)가 인류의 보호자로 찬양되었다.

고대근동 사회에서 신들은 대체로 정의를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고 또 인간 사회의 정의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에서 법을 신이 왕에게 수여한다고 이해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이 인간사회의 정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찬양의 주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원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샤마쉬는 사람 사이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찬양 받았다.<sup>25)</sup>

당신은 비양심적인 재판관이 족쇄를 차게 했나이다. 선물을 받고 정의가 당

22) 김 영진, 「크투빔: 성문서 연구」 72-76쪽.

23) K.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85-86쪽.

24) W. W. Hallo, "Individual Prayer in Sumerian," *JACS* 88 (1968), 84쪽.

25) W. G.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133쪽, ll. 97-100쪽.

신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형벌을 만드나이다. 선물을 거절하고 악한 자 편에 서는 자는 사마쉬를 기쁘시게 하며, 그는 그의 목숨을 연장시킬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찬양시가 신, 여신, 신전 및 왕권을 찬양하듯 시편에서도 여호와 왕권 찬양, 시온찬양, 거룩한 산성에 대한 찬양 등의 주제가 유사하다.

시편이나 바벨론 탄원시의 경우에도 그 주제가 매우 유사하다. 즉, 병, 원수의 억압, 신의 유기, 죄의 고백, 친구들이 버림, 여러 종류의 시련 등이 탄원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의 발견이 어느 시가 어느 쪽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제들은 누구에게서나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sup>26)</sup> 뿐만 아니라 탄원시에서 신의 보호하심, 건강, 장수 그리고 구원 등을 위한 탄원하는 것은 시편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에서 유사하게 발견된다.

### 3. 시편과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의 차이점

시편과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은 지리적, 역사적, 종교적 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상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 1) 유형적 차이점

형식적 차이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찬양시나 탄원시에서 신을 부를 때 신에 대한 수식어가 길게 나열되어 있으나 시편의 탄원시에서는 단순하게 여호와를 부르며, 이 부분이 매우 짧다. 이점은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과 시편의 두드러진 차이점 가운데 하나이다.<sup>27)</sup>

시편의 찬양시와 메소포타미아의 찬양시의 찬양의 성격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즉, 시편에는 선포적 찬양시(narrative praise)와 묘사적 찬양시(descriptive praise)가 모두 등장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의 찬양시는 묘사적 찬양시의 성격을 나타낸다. 시편의 찬양시는 선포적(선언적) 찬양의 성격이 강하다.<sup>28)</sup> 시편의 찬양시는 대부분 하나님이나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26) J. H. Wa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144쪽.

27) J. J. M. Roberts,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48쪽.

28) 김 이곤은 시편의 선포적 찬양을 감사시로 분류한다. 김 이곤, 「시편(1)」(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35-138쪽.



선포하는 찬양이 시편 찬양시의 주된 특성인데 이러한 특징은 시편의 찬양시의 개인적 특성 때문이다.<sup>29)</sup> 시편 찬양시는 감사시와 결합된 형태를 띤다.<sup>30)</sup>

또한 수메르어나 아카드어로 기록된 개인 탄원시나 애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는 공동체 탄원시인 반면, 시편의 탄원시는 개인적인 탄원시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탄원의 주체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탄원만으로 구성된 탄원시는 시편의 독특한 특징이다. 시편이나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에서는 찬양과 탄원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탄원으로만 구성된 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sup>31)</sup>

## 2) 내용적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신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사상 혹은 내용상의 차이점이다. 시편은 유일신관을 강조하는 반면,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은 다신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에서는 어떤 한 신의 절대주권이 노래되거나 강조되지 않지만 일부 상층 신들은 마치 절대적 주권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었다. 이와 함께 고대근동의 신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 노래되어졌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다.

둘째,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에서만 다루는 독특한 주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시편에는 왕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왕에 대한 찬양의 주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두무지나 오시리스처럼 죽은 신을 위한 탄원이나 죽은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 신탁을 위한 기도, 사후 세계에서의 인영을 위한 간구 등은 시편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시가문학에서는 발견되

29) J. H. Wa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145쪽.

30) 베스터만은 궁궐의 개인감사시를 선언적 찬양시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궁궐의 찬양시를 서술적 찬양시라고 불렀다. C.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81-151쪽.

31) 히브리어 찬양시 가운데서도 찬양과 탄원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는 대부분이 감사시편으로 분류한다(시 66, 67, 118, 136편 등). 히브리어 시에는 탄원으로만 구성된 시도 많다.

32) J. J. M. Roberts,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2002), 48쪽.

는 주제이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황제 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신 이해의 차이는 독특한 양식 혹은 주제를 강조하게 된다. 시편에서는 절대적 하나님에 의한 적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자주 요청되지만(시 35, 109편)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에서는 이러한 적에 대한 저주의 탄원은 발견되지 않는다.

넷째, 시가문학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시편이나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의적이냐? 비제의적이냐?” “개인적이냐? ? 비적이냐?” “공적인 것이냐 혹은 대중적인 것이냐?” “공무상 사용된 것이냐 아니면 대중적인 것이냐?”의 질문은 오랜 논쟁거리이다. 분명한 사실은 시가문학은 감성적이고, 종교적인 특징이 삶의 정황 때문에 다른 문학 장르보다는 널리 사용되기가 용이한 점이 있다. 즉, 어느 특정시편의 삶의 정황을 하나로 규정하삶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에 속하는 시 69편도 시의 결론에 해당하는 34-36절은 ? 비적 상황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sup>33)</sup> 또한 안식일의 찬송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 92편에서도 안식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없다. 따라서 원래는 안식일을 위해 불린 노래가 아니었는데 후에 안식일 노래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가문학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보편적인 공통점이지만 그럼에도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은 대체로 공동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가문학이 왕실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리하기위하여 사용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순한 문학작품으로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소포타미아의 찬양시에서는 신이 한 개인을 위해 행한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노래는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왕조 찬양시는 서기관들에 의하여 왕을 찬양하기 위하여 저작되었으며, 이것들은 주로 왕실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개인적 성격보다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묘사적 찬양시가 많이 발견된다.

다섯째, 시편의 찬양시와 고대 근동의 찬양시 모두 신의 성품에 대한 묘사

33) K.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118쪽.

적 찬양이 발견되지만 그러나 묘사방법의 차이점이 약간 발견된다. 즉, 바벨론의 찬양시에는 신의 다양한 성품을 간략히 열거한다. 바벨론 찬양시에서 “강한 영웅” “능력의 주,” “같은 이가 없는 이” 등과 같은 신을 존경하는 다양한 호칭들이 나열되며, 신의 위대한 행동에 대한 언급을 간결하게 나열한다. 뿐만 아니라 “당신 같은 이가 누구뇨?”와 같은 수사적인 의문이나 부정형으로 “아무도 당신과 같지 않도다”와 같은 찬양어구가 발견된다.<sup>34)</sup>

여섯째, 탄원의 근본적인 목적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메소포타미아 탄원시에 해당하는 에르샤훈가(eršahunnga) 및 아카드 슈일라(šulla)는 주로 신과의 화해를 위한 탄원 및 일반적인 행복을 위한 탄원이 주를 이룬다.<sup>35)</sup> 이러한 현상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낄 때 탄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종류의 병이나 고난을 겪을 때 신에게 죄 사함과 공휼을 요청하고 이것은 곧 치유나 고난에서의 구원 요청과 같은 것이다.

일곱째, 신들이 탄원자의 탄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또한 시편의 탄원시와 메소포타미아 탄원시 사이에 차이가 있다. 시편 탄원시에서 탄원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근거는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이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가 화난 신을 위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탄원자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탄원과 함께 동반되는 제의와 제물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희생제물은 신이 분노를 가라앉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탄원자는 신이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자신의 과거의 공로를 제시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도덕적 무죄나 무지, 자신의 제의적 독실함, 신에 대한 자신의 불굴의 충성, 또는 단순히 자신의 높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것만으로 신을 설득할 수는 적 무죄따라서 탄원자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게 해달라고 설득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익을 약속하면서 신을 설득한다.<sup>36)</sup>

시편의 탄원시에는 탄원자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부분이 등장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탄원시에는 단지 원수들로부터

34) S. Mowinkel, *Psalms in Israel's Worship*, 179쪽.

35) E. R. Dalglish, *Psalm Fifty-one in the Light of Northwest Semitic*, 46-47쪽.

36) W. W. Hallo, "Individual Prayer in Sumerian," *JAO* 88 (1968), 79쪽.

구원을 간청하지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에게 탄원할 때 신이 응답하게 되는 것은 탄원자의 정당함 때문이 아니라 신이 탄원자로부터 위로받았을 때 응답받았다고 여긴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에서 탄원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신을 위로하고 신을 달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덟째, 시편의 탄원시는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와 달리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발견된다(시 35, 109). 그러나 고대 근동의 탄원시에서는 이러한 저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수들의 손에 의한 핍박과 원수들이 굴복하고 밟히거나 망하기를 바라는 간청들이 언급될 뿐이며, 또한 원수의 악한 체계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발견된다. 이처럼 시편 탄원시에서 저주의 내용이 발견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유일신 신앙에 의한 것이다. 즉,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여 악인이 악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신학에 의한 것이다.<sup>37)</sup> 이러한 신학에서 이스라엘의 시편에서는 탄원자가 반드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신론적 신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들이 그들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과응보의 사상에 얽매어 있는 시편 탄원시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어지고 진리로 인도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고대 근동의 탄원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길은 신비롭고 혹은 알려지지 않는 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sup>38)</sup>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는 탄원과 화해의 제사가 동반되는 제의에서 사용됨으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편의 삶의 정황에 대하여 궁켈(H. Gunkel) 이래로 광범위한 제의로 인식되어 왔다. 거스텐버거(E. S. Gerstenberger)는 탄원시들은 제의에 속한다기 보다 부족 내에서 치유 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39)</sup> 그러나 이를 입증할 성서적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37) J. H. Wa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147쪽.

38) J. H. Wa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148쪽, 각주 48.

39) E. S. Gerstenberger, *Der bittende Mensch*,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80).

아홉째,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의 많은 부분이 주문에 속한다는 것은 시편의 탄원과 또 다른 차이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탄원의 중요한 부분은 탄원과 함께 드러지는 제의이다.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 가운데 모든 종류의 병과 재앙의 원인으로 믿어졌던 귀신들을 쫓기 위한 제의에서 주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신의 보호가 없어졌을 때, 귀신의 힘에 당하는 약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분노하는 신을 위로하려고 시도하는 불평의 기도는 탄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귀신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의식을 수반한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가 주문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메소포타미아 탄원시와 시편의 탄원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즉, 시편에서는 유일한 여호와만을 강조한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난과 질병까지도 여호와 자신이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선과 악 모두가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악은 신의 분노의 결과로서 임하는 형벌이며, 따라서 질병과 재앙은 일반적으로 귀신들, 술객들, 점신자들에게 돌려진다는 점이다.

열째, 시편과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에서는 알려진 범죄와 죄에 대한 고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탄원시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죄 사함을 구하지만 이집트의 탄원시에서는 신의 긍휼이나 죄 사함을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집트 찬양시들에서 죄보다는 무지의 결과로서 개인의 허물들이 일반적으로 묘사된다.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죄가 기록되어 있지만 바벨론 문학에서는 죄악에 대한 가정이 하나의 전형으로 등장한다. 모빙켈은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 죄는 그가 아는 것이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는 신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

따라서 시편과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에서 모두 탄원자의 무죄 주장과 더불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차이점은 시편 탄원시는 탄원자 자신의 무죄를 가정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있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는 신과 화해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죄를 시인한다.

따라서 시편에서나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에서 탄원자의 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sup>40)</sup> 시 39편 8절의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라는 구절이

40) 시편에서 시편기자가 자기의 죄를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예들이 있기는 하지만(시 32: 5와 51: 3) 그러나 그 예가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죄가 불분명한 예이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탄원시에서도 어떤 행동이 신에게 죄를 범한 것인지를 개인이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sup>41)</sup>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의 전형은 죄를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많은 예들이 있다. 많은 제의 절차들이 죄의 성격이 확인되게 하려는 의도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sup>42)</sup> 그러나 이처럼 시편이나 메소포타미아 탄원시에서 죄가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시편에서는 탄원자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탄원자가 죄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신의 공흠을 간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4. 결론

시편과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을 비교하면, 형식적, 구조적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두 문화권의 신관의 차이에 의한 차이점 역시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두 시가문학 사이의 어떤 교류나 영향이 있었다고 결론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설령 시편이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내용이 이스라엘화(化) 혹은 아웨 신앙화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 이외에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sup>43)</sup> 왜냐하면 설령 어떤 영향을 주고받거나 혹은 외국의 시를 채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가 담고 있는 신학적 전망 역시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편과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은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41) 비덴그렌(G. Widengren)은 이러한 확신의 부족을 설명한다. 인간은 신의 본성을 완전히 알 수 없기에 신의 뜻과 의도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죄를 짓는다. 그의 죄는 자신에게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의 본성에 대한 인간의 통찰력 부족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통찰력 부족 때문에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는 거룩한 뜻에 철저히 무지하지는 않는데, 이는 이것이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셨다. 만일 그가 이들을 어기면, 그는 자기의 범죄를 충분히 잘 안다.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저지른 죄를 언급하는 경향은 알려지지 않은 죄에 대한 이 아이디어에 적합하며, 거기서는 신의 비이성적인 측면이 우세하다. G. Widengren, *Accadian and Hebrew Psalms of Lamentation as Religious Documents*, (Uppsala: Almqvist & Wiksells, 1936), 160-161쪽.

42) 이러한 어떤 특수한 죄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추측하는 상황이다. 특수한 죄를 처음으로 고백하고 바로 사행 후에 “내 죄악이 많사오나 나는 무엇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나다”라는 시인하고 있는 본문에서도 분명하다.

43) 예를 들어 벨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던 시편 20편이 유다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하여 채택되었을 때 벨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여호와로 바뀌어야 하며,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을 때는 여호와가 이집트 신 호루수와 결합하여 호루스-야호(Horus-Yaho)가 된다.

있다. 시편의 선포적인 찬양이 많이 사용되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묘사적인 찬양이 두드러진다. 탄원시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는 신과의 화해 욕구와 탄원자의 무지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시편에서는 탄원자의 해명 간구와 무죄 주장이 강조되는 점 역시 차이점이다. 메소포타미아의 탄원시는 주술적인 주문과 화해시키는 의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메소포타미아 탄원시만의 특징이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과 시편의 유사점은 자연적으로 발견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항상 찬양과 탄원, 기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찬양이나 탄원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유사하다. 각 문화권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이점은 신학이나 신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시가문학은 가나안 시가문학, 특히 우가릿 시가문학의 영향 아래 발전하였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sup>44)</sup>

## 5. 참고문헌

- 기 민석, “시 82편: 우가릿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제 32집 (2009), 111-130쪽.
- 김 영진, 『이스라엘 역사 서설』 (광주: 울람하타나, 2002).
- \_\_\_\_\_, “시가문학의 고대근동적 배경에 관한 연구,”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59-74쪽.
- \_\_\_\_\_, 『크투빔: 성문서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김 이곤, 『시편(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유 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제 32집 (2009), 30-62쪽.
- 장 일선, 『구약성서의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Anderson, B. W.,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rack for us Today*, (Louisville: Abingdon, 2000).
- Avishur, Y., *Studies in Hebrew and Ugaritic Psalms*, (Jerusalem: Magness, 1994).
- Cohen, M. E., *Sumerian Hymnology: The Eršemma*, HUCA Supplements No. 2,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1981).
- Cooper, J. S., “Warrior, Devastating Deluge, Destroyer of Hostile Lands: A Sumerian šuilla to Marduk,” E. Leichty/M. De J. Ellis/P. Gerardi(eds.), *A Scientific Humanist: Studies in Memory of Abraham*

44) J. J. M. Roberts,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47쪽.

- Sachs, (Philadelphia: University Museum, 1988), 83-93쪽.
- Craigie, P., "The Comparison of Hebrew Poetry: Psalm 104 in the Light of Egyptian and Ugaritic Poetry," *Semitics* 4 (1974), 10-21쪽.
- Daglish, E. R., *Psalm Fifty-One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Patternism*, (Leiden: Brill, 1962).
- Dahood, M., *Psalms I-III*, (New York: Doubleday, 1982, 1983).
- Driver, G. R., "The Psalms in the Light of Babylonian Research," D. C. Simpson(ed.), *The Psalmists: Essays on Their Religious Experience and Teaching, Their Social Background, and Their Place in the Development of Hebrew Psalmod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6), 109-175쪽.
- Ebeling, E., *Die Akkadische Gebetsserie 'Handerhebung'*, (Berlin: Akademie, 1953).
- Falkenstein, A., *Sumerische Götterlieder*, (Heidelberg: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1959).
- Feinberg, C. L., "Parallels to the Psalms in Near Eastern Literature," *BibSac* 104 (1947), 290-297쪽.
- Fensham, F. C., "Psalm 29 and Ugarit," *Studies on the Psalms*, (Potchefstroom: American Oriental Society, 1963), 84-89쪽.
- Ferris, P. W. Jr., *The Genre of Communal Lament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Atlanta: Scholars Press, 1992).
- Foster, D. C., *Before the Muses: An Anthology of Akkadian Literature*, (Bethesda: CDL Press, 1993).
- Ginsberg, H. L., *Kitbe Ugarit*, (Jerusalem: Carta, 1936).
- Gunkel, H., *Die Psalmen: uebersetzt und erklar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 \_\_\_\_\_,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3).
- \_\_\_\_\_,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 \_\_\_\_\_, *Introduction to Psalms: The Genres of the Religious Lyric of Israel*,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 Hallo, W. W., "The Cultic Setting of Sumerian Poetry," *Actes de la XVIIe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A. Finet, (Belgium: Comité Beleg de Recherches en Mésopotamie, 1970), 116-134쪽.
- Hallo, W. W.(ed.),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I: Canonical Composi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Leiden: Brill, 1997).
- Johnston, S. I., *Religions of the Ancient World*, (Cambridge: The Belknap



-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Lambert, W. G.,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Oxford: Clarendon Press, 1960).
- Livingstone, A., *Court Poetry and Literary Miscellanea* (SAA 3),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89).
- Mowinckel, S., *Psalms in Israel's Worship*, 1-II, (Nashville: Abingdon, 1962).
- Roberts, J. J. M.,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Eisenbrauns, 2002).
- Sparks, K. L.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Peabody: Handdrickson, 2005).
- Stummer, F., "Die Psalmengattungen im Lichter der altorientalischen Hymnenliterature," *JSOR* 8 (1924), 123-134쪽.
- von Soden, W., *The Ancient Orien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Ancient Near East*, (Rand Rapids: Eerdmans, 1994).
- Walton, J. H.,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9), 135-168쪽.
- Weissbach, F. H., *Babylonisch Miscellen*, (Leipzig, Hinrichs, 1903).
- Westermann, C., *The Psalms: Structure, Content & Message*, (Minneapolis: Augsburg Publication House, 1980).
- Widengren, G., *The Accadian and Hebrew Psalms of Lamentation as Religious Documents: A Comparative Study*, (Uppsala: Almqvist & Wiksells, 1936).

#### 검색어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 • 시편 • 장르 • 탄원시 • 찬양시

투고일: 2009년 4월 29일

심사일: 2009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3일

---

## The Psalm and the Psalmody of Mesopotamia

---

**Young-Jin Kim,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the various types of the Psalms were peculiar to Israel or they were among the literary forms influenced/imported from the Ancient Near East,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salms and the Mesopotamian poetic literature is necessary. Thus, by comparing the Psalms with the Mesopotamian poetic literature among the Ancient Near East, the present study explicates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s of type, structure, content, and theology/ideology on a deeper level.

When the Psalms and the Mesopotamian poetic literature are compared, the similarities are found in terms of form, structure, and content. However, there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ultures in terms of their views of god. Nevertheless, that there are similarities among them does not prove that there was interchange or influence between the two poetic literatures.

Even if the Psalms were influenced from the Mesopotamian poetic literature, it is difficult to find any further similarity besides their types and structures

since their contents have been Israelized

Therefore, each of the Psalms and the Mesopotamian poetic literatur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There are many declarative praises in the Psalms whereas the descriptive praises stand out in Mesopotamia. As for the lament, there is another difference that the Mesopotamian lament asserts the desire for the reconciliation with gods and the ignorance of the petitioner whereas the Psalms accentuate the petitioner's supplication for explanation and vindication of innocence. One of the peculiarities of the Mesopotamian lament is that the magical chant and the reconciliatory ritual were interrelated in the Mesopotamian lament.

Rather the similarity between the Mesopotamian poetic literature and the Psalms can be understood as natural. There have been always praises, laments, and prayers in whatever form in the human societies, and the contents of the praises, laments, and the prayers are basically similar. The difference among the cultures was caused by the difference of theologies and views of god. According to the general scholarly opinion, the poetic literature of Israel developed primari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etic literature of Canaan, especially Ugarit.

#### **Keywords**

Genre  
Psalmody of Mesopotamia,  
Psalms,  
Lamentation  
Praise Psalm